

## 교회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18:1)

# 주강충현

발행인 : 이 중 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충 현 교 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 552-8200 FAX: 552-2925

사서함 : 영동우체국 1896호

91년도 목회 지침 : 모범적인 교회 생활 지표 :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 세계 선교는 우리가 선교훈련부 신설 등 기본적 선교 정책 조정

20세기 초까지 세계 선교를 주도해 오던 서구교회의 쇠락은 세계 선교의 주도권을 아시아 교회로 넘어오게 하였다. 특히 아시아 교회에서도 한국 교회가 그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하리라 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 가고 있다. 이런 상황의 변화 속에서 우리 교회는 오늘 세계 선교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 교회는 1968년 11월 해외복음선교회를 발족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대사역에의 첫발을 내디뎠다. 그로부터 2

년 후인 1970년에는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였고 21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22명의 선교사가 13개국에서 복음을 위하여 수고의 땅을 흘리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90아시아선교대회, 김치(KIM-CHI) 세미나 등 다양한 선교 운동을 전개하였으며 94년도에는 한국 21세기 운동 94세계대회를 계획하면서 선교 사역의 선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다.

오늘 I부에서 IV부 예배 시간

에는 선교 헌금을 작성하고 저녁 7시에는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결심을 다지게 된다.

특히 선교위원회는 예년과는 달리 성도들의 세계 선교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하고 전교인이 세계 선교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교 포스터와 표어를 모집하는 것 외에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선교를 위해 교육위원회 산하에 선교훈련부를 신설하며, 기금 마련을 위한 특별한 계획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 믿음의 가족들에게 드리는 사랑의 편지

존경하는 K집사님,

주일이면 남달리 두꺼운 외투를 입으시고, 입에는 호르라기를 물고, 손을 좌우로 흔들리며 항상 감사하는 얼굴로 차량을 정리해 주시는 집사님께 우리 충현의 가족들은 머리를 숙일 뿐입니다. 때로는 낯선 성도님들의 길잡이도 되시고, 어린이들의 보호자도 되시는 우리 집사님들의 크신 사랑에 온 성도들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끔 성도님들로부터 오해도 받으시고 무례한 일을 겪으시면서도 언제나 변함없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생의 정신으로 봉사하시는 집사님을 비롯한 차량위원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도록 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수천 대의 자동차가 같은 시간에 물밀듯이 몰려들 때, 집사님들의 도움이 없다면 충현의 가족들은 얼마나 안타까와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모범적인 교회를 지향하는 충현의 성도들이 차량부원들의 지시에도 이전보다 더 잘 순종하시리라 믿으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봉사하시는 집사님의 얼굴이 더욱 밝아 보이고 흔들리는 손이 더욱 기운차 보여지는 것 같아 자랑스런 우리 교회 집사님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1. 20

이 중 윤 목사

## 17일에 신임 교역자 환영회

우리 교회는 지난 1월 16일 메추라기홀에서 최근에 새로 부임한 신임 교역자 9명을 환영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환영회는 전체 교역자들과 그 가족들의 긴밀한 유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한편 신임 교역자들은 "이제는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 형제라는 친근감을 갖게 되었다."면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협력 목회의



분위기를 하루 속히 익히 모범적인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되겠다."며 소신을 밝혔다.

## 요시오 시미즈 목사 초빙

세계를 교구로 삼고 복음을 확장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우리 교회는 일본인 국내 거주자와 방문자 전도를 위하여 요시오 시미즈 목사를 부목사로 초빙하고 지난 12일 부임하였다.

시미즈 목사는 일본 동경대학교 국제학과를 졸업하시고 한국의 총신 연구원에서 신학을 수업하였다.

## 충현올림픽 개최 장소 확정

오는 5월 21일에 개최할 예정인 제3차 충현 올림픽을 치를 장소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체육부의 승인을 얻어 올림픽 제1체육관으로 확정되었다.

올림픽 제1체육관은 만5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의 실내체육관으로서 올림픽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다.

## 청년2부 특강 갖기로

청년2부는 회원들의 신앙 성숙과 제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일년에 두 차례씩 갖고 있는 특별 장영회를 올해는 2월 3일에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2부는 특별 강연회를 통하여 신약학을 전공하고 총신대와 동 대학원에 출강하고 있는 정훈택 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산장보훈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이 특별 강연회에는 청년2부 회원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참된 성숙을 원하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 고등부 수양회 통해 한 해 준비



고등부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3박 4일 동안 충현기도원에서 제21회 동계 수양회를 개최하였다.

"비전을 수정하라"는 주제 아래 최남수 목사(의정부 교회 서무)와 이창엽 목사, 김형도 전도사(《십대들의 족자》발행인)를 강사로 초빙하여 진행된 이 수양회에서, 고등부 학생들은 특강, 성경 공부, 말씀잔치(부흥회), 성극 발표회, 춘극대회 등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형도 전도사는 "내 자신을

작려하라"는 주제로 한 특강에서 십대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부정적인 자아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개발하여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여,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었다. 또한 기도원 주변에 "천로역정"을 만들어 놓고 모의 장례식을 치르는 등 인생을 살면서 만날 수 있는 고난과 역경을 가상적으로 체험하면서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68명이나 되는 고3학생들도 수양회에 참가하여 먼저 기도롭게 수험 준비에 임했다. 뿐만 아니라 참가 학생들은 철야 기도회를 통해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는 체험도 하였다.

참가자들은 이번 수양회가 모든 일정에 있어서 학생들의 성숙한 면모를 나타내는 은혜로운 수양회였다고 평가하였다.

## 이중윤 위임목사 일본 복음주의연맹 초청으로 방일

이중윤 위임목사는 일본 복음주의 동맹의 초청을 받고 1월 21일(월) 출국하여 26일(토)에 귀국할 예정이다.

이 목사는 일본 체류 중 동경

성서 신학 대학원과 고베 루터 신학 대학원에서 각각 특강을 하게 되며 아시아신학대학원(AGST)의 졸업식에서 설교를 하게 된다.

## 선교 포스터 및 표어 모집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의 사명을 새롭게 다짐하며 선교의 열의를 고취하고자 선교 포스터 및 표어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다 음

1. 주 최 : 세계선교위원회
2. 참가범위 : 충현교회 전 성도.
3. 규 격 : 포스터 - 4절지  
표 어 - 16절지
4. 제출마감 : 1991. 3. 31
5. 제 출 처 : 세계선교위원회(선교관 406호)
6. 시 상
  - 1) 일시 : 1991. 4
  - 2) 대 상 (1명)
    - 만음상(교육 1, 2, 3 위원회 각 1명)
    - 소망상(교육 1, 2, 3 위원회 각 1명)
    - 사랑상(교육 1, 2, 3 위원회 각 1명)





이 중 운 목사

성경 강해

# 초청 받은 마리아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요 11:28-32)

성경의 여기 저기를 살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수없이 초청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기도으로 초청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불지여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계 3:20)는 말씀은 교제에로의 초청을 나타낸 것입니다.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 1. 마르다의 전도

첫째,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요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신앙고백을 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가서 마리아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라”는 명령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펴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통하여 마리아를 초청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목사님들의 설교나 장로님들의 기도나 집사님들의 봉사나 이웃 형제의 전도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마르다가 불평꾼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눅 10:40)

이런 마르다가 어떻게 하여 마리아를 주님께 안내하는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 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누구이신 줄을 깨달은 사람은 마르다와 같이 전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마르다가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요 11:27)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복음 전파하는 일을 결코 미룰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마르다는 “돌아가서 가만히”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수천, 수만명의 군중들을 모아 놓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같이 전도 대상자를 한 사람씩 개인적으로 만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셋째, 마르다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생길 것이라는 가정에서 말씀을 전했던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명령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흔히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구절을 살펴 보면,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라는 5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이들 동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를 삼아’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전도하면, 그 전도 대상자를 자기가 다니는 교회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전도 대상자가 다니기에 먼 곳에 위치해 있다면 그 초신자는 신앙 생활을 해나가는 데 무척 어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전도 대상자를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것에만 관심을 집중시키지 말고,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참된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 2. 마리아의 신앙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요 11:29)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즉시 응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르다를 전도자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마리아를 전도 받은 사

람의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 생활을 해나갈 때 주변 사람으로부터 방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 보면, 마리아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르가 죽자 많은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손님들만을 남겨 놓고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위 환경에 개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급히 일어나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께로 달려 나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잠시 잠깐이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그런 것들을 뒤로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나와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요 11:31)

마리아는 항상 주님의 발 앞에 오기를 기뻐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훗날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완전히 드린다는 표시로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는 헌신의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말은 그분께 예배드리고, 그분을 위해 봉사하며, 그분의 교훈을 배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요 11:32)

이것은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21절을 보면, 마르다도 예수님을 만나자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기록된 마르다의 고백과 32절의 마리아의 고백의 뉘앙스는 상당히 다릅니다. 마르다가 한 고백은 다분히 논쟁적인 언사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고백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로 사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엎드

려 ‘주님이야말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속마음을 잘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대한 감사라든지 자신의 신앙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직분자들을 임명할 때나 세례를 베풀 때 여러 성도들 앞에서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 3.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은 마리아에게만 향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바로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나같이 재산도, 권세도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겠는가?”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 중에서부터 우리들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 우리들의 앓고 일어섬과, 속과 겉을 모두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이란 무척 긴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거나 죽더라도 한참 뒤에 죽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천국으로 불러 가실 그때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도 며칠이 지난 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예수님을 외면했던 베드로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을 팔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 ‘가지 않겠어요.’ 혹은 ‘다음에 가겠어요.’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주변의 상황에 개의치 않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 갔던 마리아처럼, 우리들도 “주여 나를 부르셨나이까”라고 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며, 헌신을 다짐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고

## 헌신을 다짐하는 삶을 살아야



## ■ 독자의 난

## 겨울에 드리는 기도

배 병 호 성도(에바다부 성인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변함 없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아래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뜻을 이루시는 주님,

저희들은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내어 주실 만큼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소원, 나의 뜻대로 해주셔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라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기 위하여 주님 앞에서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별사에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일을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살아 움직이는 믿음으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나 그네로 머무르는 동안, 육신의 질병과 가난의 슬픔이 클지라도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할 고난이요, 저희들이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야 할 십자가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것이 장차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일의 영광스러운 삶을 바라

보고 오늘은 쉬임없이 성화의 길을 걷는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도록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고하신 대로 오늘날 이땅에는 거짓된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단이 뿌려 놓은 가라지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확신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찾아 다니며, 믿음 아닌 지식으로 영생을 얻는다든지, 그리스도조차도 창조되었다며 터무니 없는 주장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케 할 이단 교회들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옵시며, 저희들이 이미 가진 믿음을 굳게 지켜 장차 받을 면류관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고 손에 쥐지 못한 것들을 소유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저 거룩한 새 하늘, 새 가나안 복지를 바라보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과 소망을 사랑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명철은 주님의 말씀 안에 있사오니 말씀을 읽고, 전하고,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지혜가 장성한 사람, 믿음이 부요한 사람들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 ■ 위원회를 찾아서 (1) - 찬양위원회

## 찬양대의 음악 수준 향상시킬 행사 준비



지난 1월 12일 갈릴리홀에서 청지기 수련회를 마친 찬양위원회(위원장 오태희 장로)는 91년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알찬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먼저 정례적으로 기독교의 중요 절기에 맞추어서 고난주간 음악예배, 부활절 음악예배, 교회 창립 기념 음악예배, 성탄절 음악예배를 주관할 예정이다. 또한 모든 찬양대원들의 전반적인 수

준 향상과 음악을 통한 선교를 목적으로 10월 중순에는 "충현 찬양대 성가 합창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각 찬양대마다 2곡 정도의 곡을 선정하여 발표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행사에도 출연하여 음악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도 갖고 있다. 첫째로, 찬양대원 가운데 출연을 희망하는 사람은 11월에 코리아 심포니가

주최하는 "5천명 합창제"에 참가하게 된다. 이 합창제에 참가함으로 찬양대원들은 베토벤의 대작인 교향곡 제9번 《환희의 합창》을 연주하는 행운을 얻게 될 것이다. 또한 12월에는 메시야연주위원회가 주최하여 초교파적으로 실시될 "메시아 연합 연주회"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 ◆ 절기에 따른 음악예배

| 명칭        | 내용                                      | 명칭          | 내용                                      |
|-----------|-----------------------------------------|-------------|-----------------------------------------|
| 고난주간 음악예배 | 1. 일시: 3. 27(수) 저녁 7시<br>2. 담당: 할렐루야찬양대 | 교회창립기념 음악예배 | 1. 일시: 9. 1(주일) 저녁 7시<br>2. 담당: 임마누엘찬양대 |
| 부활절 음악예배  | 1. 일시: 3. 31(주일) 저녁 7시<br>2. 담당: 시온찬양대  | 성탄절 음악예배    | 1. 일시: 12. 22(주일) 저녁 7시<br>2. 담당: 아멘찬양대 |

## ◆ 1991년도 주일 찬양예배 담당순서

| 월 | 일  | 특별찬양       | 월 | 일  | 특별찬양     | 월  | 일  | 특별찬양      |
|---|----|------------|---|----|----------|----|----|-----------|
| 1 | 6  | 핸드벨콰이어     | 5 | 5  | 제6교구     | 10 | 6  | 제1교육위원회교사 |
|   | 12 | 할렐루야찬양대    |   | 12 | 제7교구     |    | 13 | 제15교구     |
|   | 13 | 교역자·장로 부부  |   | 19 | 요한전도회    |    | 20 | 제2교육위원회교사 |
|   | 20 | 제1교구       |   | 26 | 크로마하프연주단 |    | 27 | 크로마하프연주단  |
|   | 27 | 크로마하프연주단   | 6 | 2  | 제8교구     |    |    |           |
| 2 | 3  | 제2교구       |   | 9  | 핸드벨콰이어   | 11 | 3  | 제3교육위원회교사 |
|   | 10 | 제3교구       |   | 16 | 루디아전도회   |    | 10 | 제16교구     |
|   | 17 | 권사회        |   | 23 | 교사연합     |    | 17 | 유치부 특순    |
|   | 24 | 크로마하프연주단   |   | 30 | 크로마하프연주단 |    | 24 | 크로마하프연주단  |
| 3 | 3  | 제4교구       | 7 | 7  | 영아부 특순   |    |    |           |
|   | 10 | 핸드벨콰이어     |   | 14 | 제9교구     | 12 | 1  | 안수집사 부부   |
|   | 17 | 제5교구       |   | 21 | 베드로전도회   |    | 8  | 바울전도회     |
|   | 24 | 크로마하프연주단   |   | 28 | 크로마하프연주단 |    | 15 | 제17교구     |
|   | 27 | 수요담당 찬양대   | 8 | 4  | 제10교구    |    | 22 | 핸드벨콰이어    |
|   | 31 | 마리아전도회     |   | 11 | 제11교구    |    | 24 | 교회학교 특순   |
| 4 | 7  | 교구찬양대회 1동팀 |   | 18 | 에스더전도회   |    | 25 | 교역자·장로 부부 |
|   | 14 | 전도회 연합     |   | 25 | 크로마하프연주단 |    | 29 | 크로마하프연주단  |
|   | 21 | 교구찬양대회 2동팀 | 9 | 1  | 제12교구    |    |    |           |
|   | 28 | 크로마하프연주단   |   | 8  | 핸드벨콰이어   |    |    |           |
|   |    |            |   | 15 | 제13교구    |    |    |           |
|   |    |            |   | 22 | 크로마하프연주단 |    |    |           |
|   |    |            |   | 29 | 제14교구    |    |    |           |



## 덕을 세우는 장로



이 응 선 장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새 날을 허락하셨다. 새해 첫 날이란 매년 시계의 추처럼 정확히 찾아 오는 것이나 뚜렷이 기억에 남을 만큼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지나왔다. 그런데 올해는 신년 첫 예배에서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해 보며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향해 간절한 소망을 하나 가지게 되었다. 1991년에는 덕을 세우는 장로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주위의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들으면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것 아니냐'고 할런지 모른다. 스스로 생각해도 건덕(建德)과는 너무 먼 성품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해지는 소망이라.

그간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

면서 행한 일들이 가시적인 성과는 이루었다고 자위해보나 때로는 일의 과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결과만을 추구하고 뛰다가 본의 아니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상처를 준 일들이 안타깝게 여겨진다.

수년 전, 우리 교회의 부목사로 계시다가 다른 교회의 당회장으로 가신 어느 목사님께서 그곳에 부임하신 지 1년이 채 안되는 어느 여름날 나를 찾아 오셨다. 매우 반갑기도 하고 그간 소식들이 궁금하기도 하여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 한때 '이 장로님의 공격을 받고 사표를 내려 했던 때도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 교회를 아끼시고 일을 해 보실 열심에 그리 하셨음을 알게 되어 오해를 풀게 되었지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순간 내 가슴은 쇠망치로 얻어 맞은 듯하였다. 어떠한 말의 실수였길래... 내 말의 실수로 목사님 가슴을 아프게 해 드렸구나. 주님은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교회의 많은 행사를 진행하면서 이해를 구하기보다 강요했던 일, 더불어 행하기보다는 혼자 성급히 절주하던 내 고집과 독선, 그 때문에 형제들 가슴에 아픔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한 것, 이런 모습들이 한 번의 실수가 아닌 체질화 되어버린 나의 실상(實像)이 아닌가 생각하니 온 몸이 떨렸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나 주님의 긍휼을 간구하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용서를 바랄 뿐이다. 나의 모든 부족을 아시면서도 오래 참으시며 사랑으로 새 날, 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1991년에는 보다 성숙한 신자가 되어 믿음의 역사(役事)가 충만하고 사랑의 수고(受苦)가 넘치며 소망의 인내(忍耐)로서 이 시대의 모범적인 충현교회를 이루라는 새 사명을 주셨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모범적인 교회의 장로다운지를 말이다. 변화되지 못한 옛 모습들이 발견되어 마음이 무겁다. 어느 면을 보아도 덕을 세우는 장로가 된다는 것은 요원한 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제부터 세상을 두려워 하던 삶에서 벗어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사랑의 수고가 있는, 현실적인 봉사로서 성숙한 신자가 되어 살아가고 싶다. 나를 택하시고 지금도 동행하시는 주님만을 믿어 사랑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힘쓰되 분초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명령만 따라 살기를 다짐한다. 아울러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온 성도의 본이되는 장로가 될 수 있기를 조용히 간구해 본다. 덕 있는 장로로 기억되기를 소망하면서, 다음호 세기동은 조선군 장로님께 부탁드립니다.



1970년 서만수 선교사를 인도네시아로 파송한 이후, 우리 교회는 작년까지 13개국에 모두 2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였다.

천국일꾼 양성, 만민에게 전도, 빈약한 자 구제를 3대 목표로 정하고 모범적인 교회로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총현교회는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로서 복음 선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91년도 선교주일을 맞아 이제까지의 선교 정책을 재조정하였다.

필요한 선교목표의 장단기 계획의 수립 및 평가를 해야 하며, 나아가서 선교사 후보의 현장 교육까지 해야 하는 임무를 갖고 있다.

이러한 목표와 임무를 부여 받고 파송된 선교사는 개척교회를 세우는 일에 전력하되 자급, 자치, 자전의 3자 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전략 목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반되는 제반의 도전들이 있다. 그것은 현지 선교를

아 지역내에서 중국어를 사용하는 목회자 및 선교사들을 초청하고자 한다.

둘째, 일본 CCC대표 목사님을 후원하며 일본 젊은이들을 선교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셋째, 한, 미, 일 청년 미래지도자 대회를 매년 3개국을 순회하며 개최하여 선교사를 양성하고자 한다. 이 대회는 1991년 8월에 있을 예정이다.

넷째, "한국 21세기운동 94 세

## 교구 활성화를 위한 제17교구 운영 사례

(이 글은 1월 7일 교구위원회 간담회에서 박치민 장로가 발표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17교구는 지난 1월 7일 교구협의회를 갖고, 교구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하였다.

1. 교구협의회는 매월 둘째주 월요일 저녁에 갖는다.

2. 모든 모임에 전력을 다한다. 특히 교구 공부시 장로는 전원 참석한다.

3. 예전부를 두어 경조사에 함께 동참한다. 부장으로 김영순 집사를 선임하고, 지역장 장로 전원과 남녀전도회장들이 주축이 되어, 소속 다락방 식구들과 협력하여 최선을 다한다.

4. 찬양대를 만들어 일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 봉사한다. 대장으로 손경수 장로를 선임하고 남녀전도회장들을 부대장으로 하여 ① 주일 저녁 찬양 예배 대비, ② 4월 교구 찬양 대회 준비, ③ 경조사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유족들에게는 위로로, 교구는 단합을 보이기로 했다.

5. 자선 바자회를 위하여 그 책임자로 박치민 장로를, 부책임자로 김영순 집사를 선임하여 계획하고 준비한다.

6. 총현 올림픽을 위해서 노분환 장로를 책임자로 선임하고, 남녀전도회장이 최대한으로 협조하기로 한다.

7. 흥해작전과 김치(KIM-CHI) 세미나, 금요기도회 등 모든 모임을 위하여 강령 장로를 지휘자로 선임하고, 모든 차량 소

지자가 이웃 성도들의 참여를 위하여 협조하기로 한다.

8. 다락방 운영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① 각 다락방은 반드시 매주 모임을 갖는다. 연합 다락방도 가져서 교역자와 지역장들이 수시로 참석한다. ② 다락방장은 반드시 보고서를 제출한다. 최악의 경우에는 보고용지에 싸인만이라도 해서 제출한다. 이는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게 할 수 있는 물론, 교역자와의 자연스러운 서면 접촉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③ 장로로부터 17교구의 모든 성도는 "총현성경통신강좌"에 참여한다.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다락방 모임에 가지고 나와서 공부가 끝난 후 모여 있어서 완벽한 준비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억이 잘 되고, 친교도 하며 소속감도 가질 수 있다.

9. 각 전도회 회계는 반드시 교회에서 실시하는 회계 감사를 받는다.

감사를 받게 되면, ① 하나님의 뜻을 조심스럽게 다루게 된다. ② 약한 전도회들이 소속감을 갖게 된다. ③ 계획된 예산의 집행에 대해 반성과 차기 계획이 정립된다. ④ 교회 모든 계도의 운영이 부드러워 진다.

10. 모세전도회의 조직은 편성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바울전도회와 함께 활동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분리하기로 한다.



계대회" 개최를 통한 복음주의 선교를 확장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다섯째는, 장기적 안목에서 중국 연변에 신학교를 세워 중국 선교를 하고자 한다. 이는 중국의 부흥에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신학교의 끊임없는 기도가 요구된다. 여섯째, 청평에 세계 선교센터를 하루 속히 건립하여 항구적인 선교 전략을 전개하는 것이다.

일곱번째로 복음이 필요한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다.

이러한 모든 선교를 위한 우리의 기도와 수고의 사역들에 총현의 모든 가족들이 뜨거운 믿음과 감사함으로 참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충실한 청지기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 ■ 우리 교회 세계 선교 전략

##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 원주민 선교 주의 지향 선교 기금도 조성키로

우리 교회의 선교를 위한 실천 목표는 주로 복음을 요청하는 나라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과, 교육, 의료, 번역, 관리, 전도 등과 같은 성경이 제시하는 간접 선교를 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할 선교사는 크게 셋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목사 선교사로서 원주민 선교목사, 원주민과 교포 선교목사, 교포교회 선교목사를 의미한다. 둘째, 사역 대상을 원주민으로 하는 평신도 선교사로서, 이들은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는 선교사와 의료, 교육 등을 위한 전문직 선교사를 의미한다. 셋째, 현지인 선교사를 말할 수 있다. 현지인 선교사는 우리 교회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현지에서 필요한 선교 정책의 연구 및 개발과,

담당할 경우 인력 개발, 선교지 개발, 적합한 선교사의 파송, 선교 자원을 개발하는 문제 등이다. 이러한 제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교 훈련부'를 신설하고 현지내에서 자체적으로 교육·훈련 하는 것, 선교지 선정 및 파송에 따른 현지의 문화 습관, 사회 분위기의 사전 파악, 장기적인 선교 기금의 마련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상황을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추진할 선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김치(KIMCHI) 세미나를 통한 원주민 선교사 훈련 및 현지 선교 지원을 들 수 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지난 1990년도에는 동구권 교역자를 초청하여 큰 은혜를 받은 바 있고 91년도 2차 세미나에서는 아시



## 제4과 아브라함의 부르심

본문: 창 12:1~4

찬송: 257, 355

### 본문 연구

1. 본문의 배경: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번성하고 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노아 홍수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점점 교만해지며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대표적인 사건이 '베벨탑 사건' (창 11:1~9)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온 지면에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그러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다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진행하셨습니다.
2.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셨습니다.
3.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첫째,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것이며, 둘째, 대 이

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것이며, 셋째, 너로 복의 근원을 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이 받을 축복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4. 결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고 축복하신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의 자손이 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옛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축복과 사명을 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 문답

1.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3.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복의 근원'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 토의

1. 지난 주간 설교 말씀 중에서 은혜가 되었던 대목을 이야기해 봅시다.
2.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은혜받은 일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 기도

1. 각 다락방의 충실한 성장과 구역 일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 중동의 전쟁이 하루 빨리 그치도록 기도합니다.